



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

# 관행을 깨다

## 수협 조난신호 자동연계





# 목차

문제의 인식

..... 01

추진 과정

..... 02

주요 성과

..... 03

시사점

..... 04



# 문제의 인식: 바다 위 사라진 신호

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



## 통신 음영구역

지형적 영향으로 통신 신호가 닿지 않는 구역 발생

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 어려움

구조 활동의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 존재



## 해경 수신소

디지털 조난신호(VHF-DSC) 수신소 운영

전국 9개소에 불과한 제한적 인프라

통신 음영구역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



## 수협 중계망

전국 49개소 규모의 광범위한 중계망 보유

해경 대비 약 5배 이상의 인프라 확보

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 존재



## 시스템 미연계

수협과 해경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

조난신호 실시간 공유 체계 부재

기관 간 협력 및 연계 필요성 증가



## 팩스 전달 방식

수협이 수신한 신호를 팩스로 전달하는 방식 사용

긴급 구조 상황에서 시간 지연 발생

비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로 신속 대응 한계 존재



# 추진 과정: 설득과 협력으로 허문 기관의 벽

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

##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이은섭 경위의 자동 연계 추진

- 수협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필요성 인식
- 통신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해결책 모색
-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시도

## 해양수산부의 우려: 정보연계망 과부하 문제

- 정보연계망의 과부하 가능성 우려
-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
- 소극적 태도에서 협력으로 전환



## 수협 측의 우려: 조난신호通報 역할 축소 부담

- 조난신호通報 역할 축소에 대한 부담감
- 기관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
- 설득과 협의를 통한 이해 도출

## 2024년 총 5차례 대면 회의 및 실무 협의를 통한 최종 합의

- 2024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협의 진행
- 인명 구조 효과를 중심으로 설득
- 2024년 11월 해수부 정보망 활용 합의 도출



# 주요 성과: 넓어진 안전망·예산 절감

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



## 시스템 연계 운영

2025년 9월부터 6개월간  
시범 운영 추진

수협 49개소 중계망과  
실시간 연계 구축

해경 시스템 내 조난신호  
자동 표출 구현

해상 통신 사각지대 보완  
효과 기대



## 수협 연계망 효과

전체 조난신호 수신율 약 67% 점  
수

해경 자체 수신망 대비 약 2배 높은  
수신율 기록

통신 음영구역 해소 효과 입증

신속한 구조 활동 기반 마련



## 실제 구조 사례

2025년 11월 거제도 인근  
선박 충돌 사고 발생

연계 시스템을 통해 조난신호  
실시간 접수

신속한 구조 활동 전개

인명 구조 골든타임 확보 성공



## 예산 절감 효과

중계소 49개소 직접 구축 시  
약 20억 원 소요 예상

기존 유관기관 시설 공유를 통해  
예산 절감 실현

유지보수 및 운영 효율성 향상

비용 절감과 구조 효율 개선의  
이중 효과 달성



# 시사점: 적극행정이 만든 안전한 바다

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



## 자원 공유 가치

유관기관 간 자원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

이웃 기관과의 협력으로 더 큰 공공 가치 실현

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



## 관행 탈피

기존의 관행적 업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

도전과 창의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추진

적극행정의 모범 사례 제시



## 디지털 안전망

대한민국 바다 전역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

통신 음영구역 해소로 해상 안전 강화

실시간 조난신호 수신 체계 완성



## 혁신적 협력

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협력 모델 구현

부처 간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 강조

국민 안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



## 지속적 혁신

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지속

기관 간 혁신을 멈추지 않는 의지 실천

더욱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추진